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의 조절 효과*

The Effects of Maternal Anxiety on Overprotec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유소미¹ 정영선²

Somi Yoou¹ Young Sun Chung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overprotection.

Methods: A total of 250 mothers with 5-year-old children responded to online survey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questions about maternal anxiety, overprotection, and their children's temperament.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maternal anxie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overall level of overprotection and all sub-factors. The cor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overprotection ha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overprotec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overprotection. That is, When the reactivity of a child was low, the positive effect of maternal anxiety on maternal overprotection was greater. Looking at the sub-factors of overprotection, only reactive temperamen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intrusive overprot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ermissive overprotection, reactivity and adaptability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howed that mother's overprotection was associated with varying levels of their own anxiety and children's temperament. These findings offer basic knowledge for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improving parenting behaviors.

key words overprotection, maternal anxiety, temperament, young children

* 본 논문은 2022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이든유치원 교사

2 교신저자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e-mail : yschung@ptu.ac.kr)

I. 서론

양육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신념과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rns, 2016). 유아기는 주 양육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시기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이 자녀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조운영, 2014).

양육과 관련하여 최근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며 의존성을 높이는 과보호 양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논의되고 있다(Buss et al., 2021; McShane & Hastings, 2009). 과보호 양육은 자녀가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앞서 보호하고,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통제하고 허용하는 양육 태도를 의미한다(정영선, 박경자, 2021). 과보호 양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됨에 따라 과보호 양육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나희 등, 2012; 김성희, 정옥분, 2011; 정익중, 2012). 과보호 양육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날 수도 있으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 태도이자 행동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의 일을 대신 처리하거나 자녀 스스로 탐색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능력과 무력감을 형성하게 되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Erikson, 1963, 1968). 이러한 유아기 과보호 양육의 영향은 발달의 누적효과와 지연효과를 통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김나희 등, 2012; 정영선, 박경자, 2021) 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과보호 양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보호 양육과 관련된 다수의 국내 연구는 성인이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보호 양육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김가연, 2019).

과보호 양육은 온정성과 민감성 같은 긍정적 양육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정익중, 2012; Kwon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보호 양육을 받은 유아는 문제 상황에서 성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Wood, 2006), 효능감 및 숙달 동기와 목표지향 지속성이 낮으며(김린, 2017; 송지은, 신나리, 202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다(장유진, 2016).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높은 불안 수준과 관계가 있었으며(류정민, 신나나, 2018; 이정희, 한세영, 2019)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를 예측하였다(김재희, 2020; Rinaldi & Howe, 2012). 이와 같이 과보호 양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떤 요인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탐색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및 유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elsky, 1984; Lerner & Galambos, 1985). 그 중 어머니의 불안은 과보호 양육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머니 특성 변인이다. Levy(1966)와 Parker(1983)는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에서 과보호 양육이 시작된다고 보았다(Thomasgard & Metz, 1993). 여러 연구에서 과보호하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부적절하게 걱정하고 매우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박아청, 1998; 정은영, 장성숙, 2008; 허묘연, 2004; Doh & Falbo, 1999; Symonds, 1939). 불안한 어머니는 자녀의 주변 환경에 대해 보다 위협적으로 인식하여 과보호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Lindhout et al., 2006). 선행연구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신경증적 성향이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Coplan et al., 2008), 자녀와 분리될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 양육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류정민, 신나나, 2018; 이정희, 한세영, 2019). 이에 대해 Levy(1970)는 어머니의 애정을 나눠주려는 욕구가 클수록 자녀가 어머니의 돌봄과 접촉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여겨,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녀를 가까이 두고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양육을 하며(강영미, 2004) 비밀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경숙, 1997; 이연실, 2017). 또한 불안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온정적 양육을 많이 하지만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무책임하고 허용적인 양육과 침해적 개입으로 인한 과보호 양육을 많이 하였다(신혜린, 2012).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으로서 불안은 과보호 양육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 외에 자녀의 특성도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녀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Lerner, 1993). 자녀의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를 가진 특성으로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민정 등, 2013), 과보호 양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수줍음이 많은 기질,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기질, 낯선 상황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기질, 높은 활동성을 지닌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과보호 양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소언주, 도현심, 2001; Coplan et al., 2009; Lee & Bates, 1985). 또한 유아가 낯선 상황에 긍정적인 접근성을 보일수록 어머니가 자율적 양육 태도를 보이며(홍순옥, 문명순, 2007), 반면에 유아의 적응성과 반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기 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김나희 등, 2012).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과보호 양육과 관계가 있는 유아의 기질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리적 규칙성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아기 취급하는 과보호 양육을 더 많이 하거나(김나희 등, 2012), 오히려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더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hen et al., 1998; Crockenberg, 1986). 이 외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강엄지, 2021; 김민정 등, 2013; 박성연 등, 1996). 이처럼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계에 관한 비밀관적인 연구 결과들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Abidin, 1992; Belsky, 1984). 예를 들어, Clark 등(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에게만 권력 행사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으로서의 불안과 유아의 기질의 개별적 영향뿐 아니라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침해를 포함하는 과보호 양육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는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el & Buss, 2013). 유사한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고 정서 조절이 잘되지 않는 어머니는 과보호 양육 수준도 높았는데, 자녀인 유아가 수줍음이 많은 경우에 더 많이 과보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plan et al., 2009). Kiel과 Buss(2013)의 연구에서 쉽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조절이 잘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낮은 상황에서 잘 위축되는 행동 억제 기질의 자녀에게만 더욱 침해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하였다. 국내에서는 외향성이 낮아 사회적 상황에서 편안하지 않은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김나희 등,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과보호 양육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형제유무와 과보호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영(2013)은 외동아 어머니가 형제아 어머니보다 과보호 양육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Kalomiris와 Kiel(2016)은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첫 아이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치 및 과보호 양육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여 외동아의 어머니가 형제아 어머니보다 과보호 양육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더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반대로 여아를 남아보다 더 과보호한다는 연구결과, 자녀의 성별과 과보호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지연, 오경자, 2011; 이종표, 김리진, 2019; 이지현, 2021). 그 밖에 연령, 학력, 근무형태 등과 같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과보호 양육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고령의 출산모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고 취업모인 경우 과보호 양육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공경혜, 2003; 정익중, 2012; 조혜주, 2003). 과보호 양육과 사회인구학적 요인간 관계를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과보호 양육과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통제하고 연구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특성 변인이지만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기질이 조절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예측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머니와 유아의 특성에 따른 긍정적인 양육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유아의 기질 변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50명이었다. 만 5세 유아는 스스로 옷 입기 등과 같은 자조활동이 가능하여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이 과보호 양육에 해당하는 정도를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자녀의 평균 월령은 67개월(범위:61~72개월, 표준편차: 3.42개월)이며, 성별은 여아가 135명(54%), 남아가 115명(46%)이고, 형제가 있는 유아(151명, 60.4%)가 외동인 유아(99명, 39.6%)보다 다소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116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41세 이상이 74명(29.6%), 35세 이하가 60명(24%) 순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157명, 63.8%)이 수도권 외 지역(93명, 37.2%)보다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0명(60%), 전문대 졸업이 58명(23.2%), 대학원 재학 이상이 18명(7.2%)으로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근무 형태는 비취업(92명, 36.8%)과 종일제 근무(82명, 32.8%)가 유사한 수준으로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월 소득수준은 400-500만원 미만(65명, 26%), 300-400만원 미만(56명, 22.4%), 600만원 이상(49명, 19.6%), 500-600만원(40명, 16%), 200-300만원(27명, 10.8%), 200만원 미만(13,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 250)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유아 성별	남	115(46.0)	유아 형제 유무	형제 유	151(60.4)
	여	135(54.0)		형제 무	99(39.6)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60(24.0)	거주지역	수도권	157(63.8)
	36-40세	116(46.4)		수도권 외 지역	93(37.2)
	41세 이상	74(29.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24(9.6)	가정의 월 소득수준 (부부합산)	200만원 미만	13(5.2)
	전문대 졸업	58(23.2)		200-300만원 미만	27(10.8)
	대학교 졸업	150(60.0)		300-400만원 미만	56(22.4)
	대학원 재학 이상	18(7.2)		400-500만원 미만	65(26.0)
어머니 근무형태	종일제 근무	82(32.8)		500-600만원 미만	40(16.0)
	시간제 근무	38(15.2)		600만원 이상	49(19.6)
	비취업	92(36.8)			
	기타	38(15.2)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그리고 유아의 기질에 대해 어머니 평정용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정영선과 박경자(2021)가 개발한 ‘어머니 과보호 양육척도(유아용)’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척도는 침해(8문항), 응석/허용(4문항), 걱정/보호(6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문항이다. 침해는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할 기회를 제한하고 도와주며 개입하는 양육 태도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석/허용은 유아에게 행동 지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훈육하지 않는 양육 태도로,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걱정/보호는 유아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만 하게 하려는 양육 태도로, ‘아이가 잘못에 대해 비판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해당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과보호 양육의 전체 수준은 과보호 양육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하위영역의 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며 하위요인별로 침해는 .78, 응석/허용은 .76, 걱정/보호는 .67이었다.

2)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의 불안은 Spielberger(1972)가 개발한 상태_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I의 검사 구성은 상태불안(State anxiety)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은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이며, 특성불안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정서적 불안으로 시간 경과에도 비교적 안정적 수치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척도만 사용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불안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대단히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 불안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3)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와 Chess(1977)의 PTQ (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와 Mcdevitt과 Carey(1978)가 개발한 RITQ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천희영(1993)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만 3~7세 유아 대상의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 척도는 활동성(9문항), 반응성(6문항), 정서성(4문항), 적응성(10문항), 생리적 규칙성(4문항)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3문항이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활동성은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서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성은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거나 밍다고 말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혼자 남겨 놓으면 울거나 기분이 안 좋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은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여 그들과 함께 논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 규칙성은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일어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그 요인의 기질적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활동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반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에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보이며,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생리적 규칙성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활동성이 .73, 반응성이 .65, 적응성이 .88, 생리적 규칙성이 .73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은 .60이하로 나타나 신뢰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22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50명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먼저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지인들에게 온라인 질문지 링크를 배포하였고, 추가로 온라인 리서치 업체(엠브레인)을 통해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제목과 목적,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대상, 온라인 설문 참여 방법, 참여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질문지는 참여자가 연구대상에 적합한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인지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 및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근무 형태, 가정의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유아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계수(VIF)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기질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아 기질의 상호작용 변수

를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과보호 양육 변인의 자기상관 여부를 Durbin-Watson 지수로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유아 기질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유아의 성별 및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근무 형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종속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형제유무만 과보호 양육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수준에서 외동아 집단($M = 2.46$)이 형제아 집단($M = 2.1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5.85, p < .001$). 이는 외동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수준이 형제가 있는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이후 분석에서 형제유무를 통제하였다.

표 2.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차이 검증 ($N = 250$)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과보호 양육(전체)	외동아	2.46	.43	5.85***
	형제아	2.16	.38	
침해적 과보호 양육	외동아	2.64	.47	5.50***
	형제아	2.32	.44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	외동아	2.02	.67	4.16***
	형제아	1.70	.51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	외동아	2.73	.47	4.50***
	형제아	2.45	.48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및 불안과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어머니의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1, p < .0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14, p < .05$), 유아의 반응성($r = -.14, p < .05$), 생리적 규칙성과($r = -.18, p < .01$)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침해적 과보호 양육은 어머니의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6, p < .01$).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0, p < .01$),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5, p < .05$). 다음으로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은 어머니의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2, p < .01$). 그리고 유아의 기질 중 반응성($r = -.16, p < .05$), 생리적 규칙성($r = -.20,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은 어머니의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7, p < .01$). 그리고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7, p < .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불안은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r = -.16, p < .05$), 생리적 규칙성($r = -.15, p < .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50)

변인	1	2	3	4	5	6	7	8	9
1. 어머니의 불안	-								
2. 유아의 활동성 기질	.09	-							
3. 유아의 반응성 기질	-.09	.38**	-						
4. 유아의 적응성 기질	-.16*	.16*	.26**	-					
5.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기질	-.15*	-.09	.18**	.23**	-				
6. 침해적 과보호 양육	.26**	.20**	-.09	-.01	-.15*	-			
7.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	.22**	-.01	-.16*	-.04	-.20**	.52**	-		
8.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	.27**	.17**	-.07	.00	-.07	.59**	.39**	-	
9. 과보호 양육(전체)	.31**	.14*	-.14*	-.02	-.18**	.85**	.81**	.79**	-
평균	2.31	2.88	3.09	2.95	3.03	2.44	1.83	2.56	2.28
표준편차	.48	.42	.44	.50	.56	.48	.60	.50	.43

* $p < .05$, ** $p < .01$.

2.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대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유아의 형제유무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 불안을 투입한 뒤,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을 모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인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모두 투입하였다. 그리고 4단계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변인인 유아의 기질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본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항의 투입에 따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보았다. 평균 중심화 실시 후 공차한

계값은 .62-.93, 분산팽창지수값(VIF)은 1.07-1.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통제 변인인 유아의 형제유무($\beta = -.35, p < .001$)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설명력은 12%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 어머니의 불안($\beta = .25, p < .01$)은 과보호 양육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6%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조절변인인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beta = .14, p < .05$)과 반응성($\beta = -.14, p < .05$)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4%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 기질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해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에서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 반응성의 상호작용항($\beta = -.18, p < .05$)으로 인해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변량이 5% 증가하여, 전체 27%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의 반응성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불안과 반응성의 평균을 중심의 $\pm 1SD$ 그룹으로 나누어 상 집단,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그래프를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1SD)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1SD)보다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효과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4.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 (N = 250)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형제유무 ^a	-.30	.05	-.35	-5.85***	34.27***	.12	.12
	어머니 불안	.23	.05	.25	4.30**			
2	형제유무 ^a	-.26	.05	-.30	-5.18***	27.61***	.18	.18
	어머니 불안	.23	.05	.25	4.30**			
	유아 활동성	.14	.06	.14	2.18*			
	유아 반응성	-.13	.06	-.14	-2.16*			
	유아 적응성	.07	.05	.08	1.36			
	유아 생리적 규칙성	-.07	.05	-.10	-1.62			
	유아 생리적 규칙성	-.23	.05	-.27	-4.67***			
3	어머니 불안	.23	.05	.25	4.23***	11.61***	.22	.20
	유아 활동성	.14	.06	.13	2.16*			
	유아 반응성	-.14	.06	-.14	-2.25*			
	유아 적응성	.07	.05	.09	1.43			
	유아 생리적 규칙성	-.07	.05	-.10	-1.62			
	불안 × 활동성	-.16	.13	-.08	-1.21			
	불안 × 반응성	-.34	.13	-.18	-2.54*			
	불안 × 적응성	.21	.11	.12	1.92			
	불안 × 생리적규칙성	-.04	.09	-.03	-.44			
	4	형제유무 ^a	-.23	.05	-.27			
어머니 불안		.23	.05	.25	4.23***			
유아 활동성		.14	.06	.13	2.16*			
유아 반응성		-.14	.06	-.14	-2.25*			
유아 적응성		.07	.05	.09	1.43			
유아 생리적 규칙성		-.07	.05	-.10	-1.62			
불안 × 활동성		-.16	.13	-.08	-1.21			
불안 × 반응성		-.34	.13	-.18	-2.54*			
불안 × 적응성		.21	.11	.12	1.92			
불안 × 생리적규칙성		-.04	.09	-.03	-.44			

a 형제 무(외동아)=0, 형제 유=1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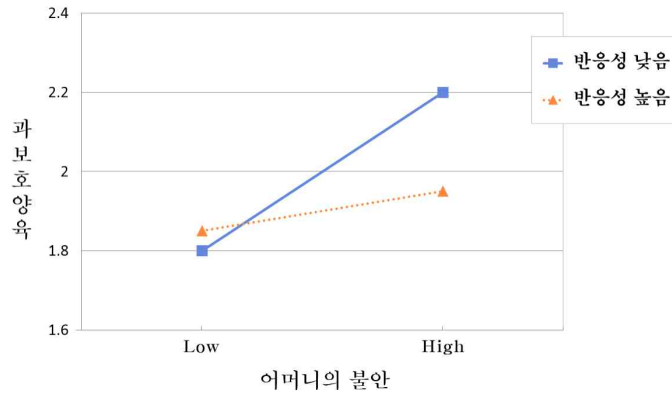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서 유아 반응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추가로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에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가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불안이 침해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반응성만이 유의한 조절효과($\beta = -.19, p < .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1SD),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1SD)보다 어머니의 불안이 침해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효과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5. 어머니의 불안이 침해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 (N = 250)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형제유무 ^a	-.32	.06	-.33	-5.50***	30.20***	.11	.10
2	형제유무 ^a	-.28	.06	-.29	-4.89***	22.16***	.15	.15
	어머니 불안	.21	.06	.21	3.56***			
3	형제유무 ^a	-.27	.06	-.28	-4.69***	10.41***	.20	.18
	어머니 불안	.18	.06	.18	3.08**			
	유아 활동성	.24	.07	.21	3.25**			
	유아 반응성	-.14	.07	-.13	-1.98*			
	유아 적응성	.07	.06	.07	1.13			
	유아 생리적 규칙성	-.06	.05	-.08	-1.24			
4	형제유무 ^a	-.26	.06	-.26	-4.56***	7.99***	.25	.22
	어머니 불안	.20	.06	.20	3.31**			
	유아 활동성	.23	.07	.20	3.25**			
	유아 반응성	-.15	.07	-.14	-2.12*			
	유아 적응성	.06	.06	.06	1.00			

표 5. 계속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유아 생리적 규칙성	-.06	.05	-.07	-1.13			
	불안 × 활동성	-.09	.15	-.04	-.62			
4	불안 × 반응성	-.39	.15	-.19	-2.63**	7.99***	.25	.22
	불안 × 적응성	.19	.13	.10	1.51			
	불안 × 생리적규칙성	-.12	.10	-.08	-1.22			

a 형제 무(외동아)=0, 형제 유=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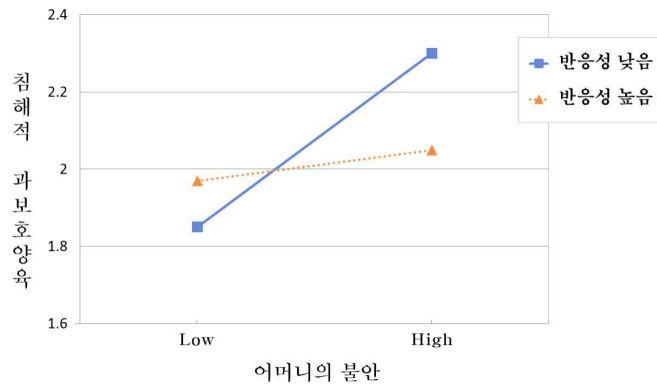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불안과 침해적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서 유아 반응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두 번째로 어머니의 불안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반응성($\beta = -.17, p < .05$)과 적응성($\beta = .17, p < .05$)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1SD), 유아의 반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1SD)보다 어머니의 불안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효과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유아의 적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1SD), 유아의 적응성 수준이 낮은 집단(+1SD)보다 어머니의 불안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효과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불안이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어머니의 불안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 (N = 250)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형제유무 ^a	-.31	.07	-.26	-4.16***	17.28	.07	.06
	형제유무 ^a	-.27	.08	-.22	-3.62***			
2	어머니 불안	.23	.08	.18	2.97***	13.32	.10	.09
	형제유무 ^a	-.25	.07	-.21	-3.38**			
3	어머니 불안	.21	.08	.17	2.69**	6.29	.13	.11
	유아 활동성	-.03	.10	-.02	-.27			
	유아 반응성	-.15	.09	-.11	-1.60			
	유아 적응성	.09	.08	.08	1.23			
	유아 생리적 규칙성	-.16	.07	-.15	-2.38*			
4	형제유무 ^a	-.22	.07	-.18	-3.00**	5.03	.17	.14
	어머니 불안	.23	.08	.18	2.87**			
	유아 활동성	-.02	.09	-.02	-.26			
	유아 반응성	-.14	.09	-.10	-1.55			
	유아 적응성	.13	.08	.11	1.65			
	유아 생리적 규칙성	-.17	.07	-.16	-2.49*			
	불안 × 활동성	-.11	.20	-.04	-.57			
	불안 × 반응성	-.44	.20	-.17	-2.33*			
	불안 × 적응성	.42	.16	.17	2.57*			
	불안 × 생리적규칙성	.17	.13	-.09	1.34			

a 형제 무(외동아)=0, 형제 유=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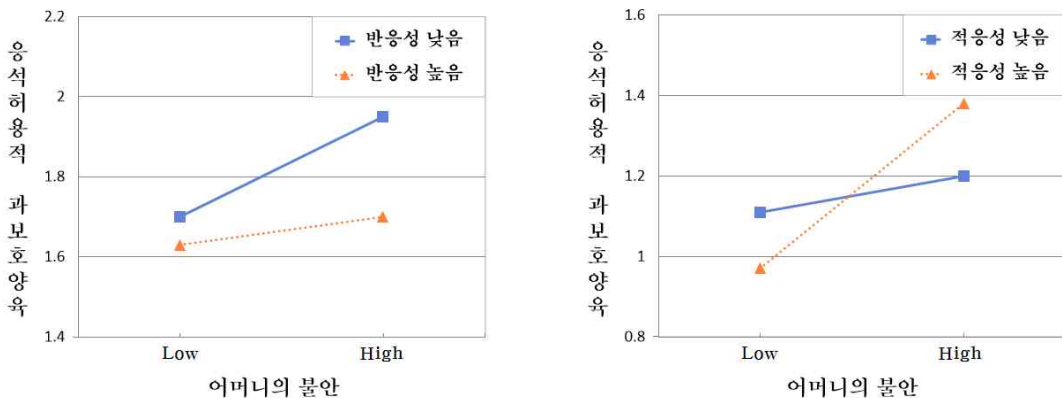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불안과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서 유아 반응성과 적응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불안,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기질의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과보호 양육의 모든 하위요인은 어머니의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 양육의 전체 수준 및 하위요인인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의 수준도 모두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도한 불안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케 하여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초래하며(김준경, 2000; 홍민지, 2018),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 통제하거나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허용적 과보호 양육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나희, 2010; 박아청, 1998; 신혜린, 2012; 이정순, 2010; 임선아, 2019).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응성, 생리적 규칙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활동성 수준이 높고, 반응성 수준과 생리적 규칙성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먼저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활동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보호적 양육이나 아기 취급 행동 또는 통제적 양육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나희, 2010; 허태희, 2008). 또한 높은 활동성을 지닌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거부적 또는 통제적, 비반응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Lee & Bates, 1985; Sanson et al., 2004). 그러나 한편으로 만 3세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자녀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성을 격려한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어(임희수, 박성연, 1994),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반응성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관계는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유사한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기말을 사용하고 자녀의 일을 대신 해주는 등 자녀를 아기 취급하는 양육과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김나희, 2010) 유아의 반응성은 아기 취급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기 취급이 과보호 양육의 한 측면이라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반응성은 자극이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문항의 예: 색 깔에 대해 예쁘다 던가 밋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응성이 높은 유아는 자극과 변화에 대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때, 반대로 반응성이 낮다고 평가된 유아에는 수줍거나 위축되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수줍거나 위축된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위협의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Colpan et al., 2009).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가 불안하여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의 독립성을 낮추고 의존성을 높여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이 지속되는 결과와 연결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기질 중 반응성 수준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 총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증가하였다.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했을 때, 하위요인에 따라 어머니 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침해적 과보호 양육의 경우 과보호 양육 전체와 동일하게 유아의 반응성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의 경우 유아의 반응성과 적응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의 경우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기질에 따라 정리하면 유아의 반응성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의 전체 수준 및 하위요인 중 침해적,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 하위요인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반응성이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할 수 있다. 반응성은 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긍정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낮은 반응성의 유아는 수줍음이 많은 기질이나 행동 억제 기질, 소극적 성향 또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유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신경증적 성향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수줍음 정도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하여 과보호 양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Coplan et al., 2009)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아동의 행동 억제 기질이 어머니의 불안 및 양육과 상호작용하여 장기적인 결과로써 아동의 불안 및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관련이 있다(Rubin et al., 2010).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부족하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사사건건 자녀의 일에 개입하고 침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춘경, 2000).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유아의 반응성 기질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의 과보호 양육을 보이지만, 반면에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낮은 반응성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수줍음 기질이나 소극적 성향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여 과보호 양육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반응성은 과보호 양육의 하위요인 중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불안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기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가보다 어머니의 불안과 상호작용할 때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볼 때,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 자신과 유아를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에 자신의 자녀를 기죽지 않게 기른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과보호 양육의 모습이 더해져, 낮은 반응성의 자녀 즉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자신의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과보호 양육의 모습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양명재, 방희정, 2014; 위지희, 채규만, 2015; 이정희, 한세영, 2019).

또한 유아의 적응성은 과보호 양육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불안과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적응성이 높은 경우 오히려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 수준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의 적응성이 낮은 경우 자녀를 더욱 취약하다고 지각하여 과보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김나희 등, 2012; 김미연, 2019). 이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과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의 관계에서 유아 적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의 단순 상관 결과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을 어머니가 측정함에 따라 자신이 혹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응답하는 등 실제와 다르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평정이나 관찰자의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활동성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불안이 과보호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기 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 및 통제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였지만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과보호 양육 사이에서 활동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김나희 등, 2012). 이는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의 활동성은 각각 과보호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뿐, 두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유아의 기질 변인 모두 어머니가 측정하여,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나, 응답자의 지각에 의해 실제 현상과 다르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머니의 불안 및 과보호 양육에 관해서는 자기 보고와 함께 관찰자의 평정을 병행하거나, 유아의 기질을 실험 또는 담임교사가 측정하는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함께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형제유무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제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외동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측 변인으로서 외동아 집단과 형제아 집단 간의 과보호 양육 양상 및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불안과 자녀 요인으로서 유아의 기질 각각 하나만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른 어머니의 불안과 유아의 기질 외에도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 요인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가정 양육을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교육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적절히 파악하고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어머니 자신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과 유아의 기질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반응성 기질이 어머니의 불안과 과보호 양육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반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엄지 (202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미 (2004). 어머니의 성취 동기, 특성불안 및 자녀에 대한 신뢰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경혜 (2003).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가연 (2019).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희 (2010).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통제적 양육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https://doi.org/10.7466/JKHMA.2012.30.3.151>
- 김린 (2017). 어머니의 침해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숙달 동기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연 (2019). 유아기질-어머니요구도 조화적합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https://doi.org/10.5723/KJCS.2013.34.2.101>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은영 (2013).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죄책감 및 아버지의 양육지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2020).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 99-117.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3.099>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647-661. <https://doi.org/10.15842/kjcp.2011.30.3.002>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류정민, 신나나 (2018).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1-20. <https://doi.org/10.14698/jkce.2018.14.01.001>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5.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 소연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2.
- 송지은, 신나리 (2023).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9(2), 21-42. <https://doi.org/10.14698/jkce.2023.19.02.021>
- 신혜린 (2012). 어머니 특질불안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재, 방희정 (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4(4), 945-970. <https://doi.org/10.15842/kjcp.2015.34.4.005>
- 이경숙 (1997). 어머니의 특성불안과 자녀교육관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우울과 불안 성향이 자녀 양육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1(4), 309-334. <https://doi.org/10.18398/kjlgas.2017.31.4.309>
- 이정순 (2010). 부부관계가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및 유아의 정서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3), 37-56.
- 이정희, 한세영 (2019). 어머니의 자기분화,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6), 31-47. <https://doi.org/10.5723/kjcs.2019.40.6.31>
- 이종표, 김리진 (2019). 아동이 지각한 부모 과보호가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4), 425-443. <http://doi.org/10.17641/KAPT.22.4.4>
- 이지현 (2021). 유아의 위협감수율이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도와 과보호 및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 (2019). 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우울감을 매개하여 영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중단 관계 검증. **한국영유아보육학**, 117, 51-71. <https://doi.org/10.37918/kce.2019.07.117.51>
- 임희수, 박성연 (1994). 첫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153-168.
- 장유진 (2016).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과 성취관심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과제수행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선, 박경자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42(3), 359-370. <https://doi.org/10.5723/kjcs.2021.42.3.359>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4), 255-278.
- 조운영 (201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주 (2003). 고령출산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허효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12(2), 170-189.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민지 (2018). 어머니 특성불안과 청소년 사회불안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과보호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옥, 문명순 (2007).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57-70.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_2104_1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erns, R. M. (2016).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10th ed). Cengage Learning.
- Buss, K. A., Zhou, A. M., & Trainer, A. (2021). Bidirectional effects of toddler temperament and maternal overprotection on maternal and child anxiety symptoms across preschool. *Depression & Anxiety*, 38(12), 1201-1210. <https://doi.org/10.1002/da.23199>

- Clark, A.L.,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74-285. <https://doi.org/10.1037/0022-3514.79.2.274>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359-371. <https://doi.org/10.1007/s10802-007-9183-7>
- Coplan, R. J., Rachel, M., & Rowan, K. (2009).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 focus on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41-246. <https://doi.org/10.1016/j.paid.2008.10.011>
-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31, 53-73. <https://doi.org/10.1002/cd.23219863105>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 Kalomiris, A. E., & Kiel, E. J. (2016). Maternal anxiety and physiological reactivity as mechanisms to explain overprotective primiparou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7), 791-801. <https://doi.org/10.1037/fam0000237>
- Kiel, E. J., & Buss, K. A. (2013). Toddler inhibited temperament, maternal cortisol reactivity and embarrassment, and intrusive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3), 512-517. <https://doi.org/10.1037/a0032892>
- Kwon, K. A., Yoo, G., & De Gagne, J. C. (2017). Does culture matter? a qualitative inquiry of helicopter parenting in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1979-1990. <https://doi.org/10.1007/s10826-017-0694-8>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5), 1314-1325. <https://doi.org/10.2307/1130246>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other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157-1164. <https://doi.org/10.1037/0012-1649.21.6.1157>
- Lerner, J. V. (1993). The influence of chil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n parent behavi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01-12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evy, D. M. (1966). *Maternal overprotection*. W. W. Norton & Company, Inc.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 Levy, D. M.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387-409). Little, Brown.
- Lindhout, I., Markus, M., Hoogendijk, T., Borst, S., Maingay, R., Spinhoven, P. et al. (2006). Childrearing style of anxiety-disordered par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89-102. <https://doi.org/10.1007/s10578-006-0022-9>
- Mcdevitt, S. C., & Carey, W. B. (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3), 245-253. <https://doi.org/10.1111/j.1469-7610.1978.tb00467.x>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481-495. <https://doi.org/10.1177/0165025409103874>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Grune & Stratton.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https://doi.org/10.1016/j.ecresq.2011.08.001>
- Rubin, K. H., Colpan, R. J., Bowker, J. C., & Menzer, M. (2010).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 (Eds.), *Handbook of childhood and social development* (pp. 434-454). Blackwell.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https://doi.org/10.1046/j.1467-9507.2004.00261.x>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Academic Press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ppleton.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 Mazel.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2), 67-80. <https://doi.org/10.1007/BF02367260>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https://doi.org/10.1007/s10578-006-0021-x>

논문투고: 23.02.16.

수정원고접수: 23.07.17.

최종게재결정: 23.08.07.